

광주시 '생색내기 청년정책'...신규사업 한 건도 없어

6대 분야·15개 지원 사업 발표
기존 정책 재탕에 짜깁기
대부분 사업 '절감 예산' 배분
청년단체 "홍보 들러리 취급"

년기자단, 찾아오는 청년정책 등의 사업도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시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돕겠다며 추경된 주요 사업도 코로나와 별개로 예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도 최저 2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42만여명에 이르는 광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 규모라는 게 지역 청년단체들의 지적이다.

광주시는 또 이날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사업비는 3억 55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도 기존 293명에서 110명을 추가 모집하는데 그쳤다. 광주 청년 중 1% 정도가 혜택을 보는 셈이다.

광주시가 1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074명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중인 청년 일경험드림사업도 지원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일자리 경력 등을 쌓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청년 일경험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으로 청년 1인당 월 125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데, 지원기간이 짧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최소한의 경험조차 쌓기 힘들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번 특별주간동안 광주시와 청년정책 자문단 회의 등을 갖고 일경험드림 사업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원안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 등 타 자치단체에선 이미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광주시가 청년의 금융안전망 구축을 돕는다며 제시한 학자금대출 신용유지·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도 40명뿐이었다.

청소년 대상 사업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겠다고 발표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예산이 5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2명뿐이었다. 내년엔 1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광주시의 포부였다.

임명규 광주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광주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직접 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건의한 신규사업도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청년 대책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 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부터), 이해찬, 김원기, 문희상 상임고문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장관 후보자 '도자기 의혹'에 27일만에 낙마...후속인선 미궁

수산업계 등 신속 지명 요구

문성혁 장관 유임 가능성 관측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13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해수부 장관 인선도 당분간 미궁 속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현직 해수부 차관으로 네 번째로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그는 해수부에서 30여 년간 잔뼈가 굵은 해양수산 전문가였다. 신속한 일처리와 소탈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부처 내에서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위장전입이나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 공직 후

보자의 결격사유로 자주 등장하던 의혹 사안도 없어 무난하게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한때 우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달 30일 이른바 '도자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박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박 후보자는 후임 차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차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해수부를 이끌어갈 수장 자리에 누가 올 것인지에 다시 모인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이 열리는 점에 비해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재임 기간에 장관직을 수행할 인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해수부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해운물류 대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산·어업계의 타격 등 무거운 과

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 내부에서는 물론 해운·항만·수산 업계 등 외부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장관 적임자를 신속히 찾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성혁 장관이 그대로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2019년 취임한 문 장관은 해수부 역사상 최장기간 재임한 장관으로, 해수부 주요 현안을 오랜 기간 직접 챙겨왔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무에서도 우위를 갖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새 장관이 들어오기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면서 "문 장관 유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이런 사정을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 5·18 앞두고 5·18묘지 합동 참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오전 이 시장은 김용집 시의회 의장,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등 50여 명과 함께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서 헌화, 분향했다. 오후에는 김 지사가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자치구와 산

하기관은 자체적으로 참배하도록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2묘역, 옛 묘지도 찾아 유공자와 민족민주 열사를 기렸다.

이 시장은 "올해는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1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미안마 학술, 아시안 혐오범죄 등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5·18 정신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준영 사퇴하자...여 "이제 그만" 야 "임혜숙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전격 사퇴로 인사청문대지정국이 새 국면을 맞았다.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 정도만 나머지는 선에서 난국을 타개하려는 당청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과녁에 올려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의 셈법이 맞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만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자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 후보자의 사퇴 직후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 중 한 분 정도 낙마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인사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청문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재촉했

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박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나머지 두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임·박·노' 3명은 물론,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딱지를 붙이면서 강경 모드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라임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 무용론을 제기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연합뉴스

NK 세포 활성화

시민면역력 검사 서비스



면역력을 알면
내삶이 행복하다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광산구민 5000여명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우선 고려

5~10월, 선착순

전화예약 ☎ 062-960-3962
방문희망일 1주일 전부터 예약가능